

제 139호 오해를 푸는 방법

어느 사회학과 교수님께서 며칠 전에 학기중간 강의평가를 해보았답니다. 학기말에 하는 섬세한 강의평가가 아니고 교수님께서 학생들의 의견을 듣고 싶어서 자발적으로 하는 평가였답니다. 질문은 간단하였기에 코멘트 받는데 시간이 약 5분 정도 걸렸답니다. "지금까지 강의에서 어떤 점이 좋았습니까? 어떤 부분이 만족스럽지 않습니까?"

다행스럽게도 학생들이 대체로 만족스럽다는 평을 해주었습니다. 세계무역센터가 붕괴된 다음날 그 상황을 이해하게 해주는 사회학 이론을 설명해주어서 좋았다는 어느 정도 기대되었던 코멘트도 있었고, 수업 시간에 게임 형식으로 진행한 퀴즈가 지겨운 이론을 외우는데 효과적이어서 다시 한번 더하자는 뜻밖의 제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학생은 역센 글씨체로 자기한테 마르크스 사상을 강요하지 말라고 항의를 하였습니다.

"어~~ 내가 언제...? 마르크스의 사회이론을 강의 한 것은 사실이지만 강요라니?? 오해를 해도 유분수지!"

그렇습니다. 사회학 개론을 가르치면서 막시즘(Marxism)을 뺄 수야 있습니까. 그런데 그 학생은 교수님이 마치 공산당을 찬양하고 자신을 세뇌교육 시키는 것으로 들었나 봅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강의평가가 익명으로 되어 있으니 그 학생을 조용히 불러다 설득시킬 도리는 없고, 그렇다고 수업 시간에 모두에게 제발 이런 오해는 하지 말아다오 당부하는 것도 우습고... "허 참. 강의를 하다보면 이런 또라이는 늘 한둘씩 나오기 마련이야 ."하고 그냥 넘어가야 하나요?

저는 강의가 모든 수강생을 만족시키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족스러워하지 않는 학생이 소수일 경우 욕심을 접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는 다릅니다. 이 학생은 교수님의 강의 방법이라든지 스타일에 문제를 제기한 것이 아닙니다. 이 학생은 강의의 핵심을 잘 못 이해해도 한참 잘 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사회학 개론에 있어서 막시즘은 무척 광범위한 관점인데 사회학을 배우는 학생이 아직도 "막시즘 = 공산주의"라는 무식한 상태를 못 벗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교수님께서 강의시간에 복습하는 셈치고 막시즘에 대하여 다시 설명 하면 좋겠습니다. 이때 막시즘 이론을 설명하는 대신 막시즘이 사회학에 차지하는 위치, 즉 큰 그림, 개념 지도, 이론들의 연관성 등(새시대 교수법 63~64호)을 보여주는 것이 효과적이겠습니다. 어떤 학생이 이런 오해를 했기 때문에 다시 강조 한다고 하지 마시고, 그 대신 이것은 중요한 포인트라서 복습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잔소리 코너>>

"어떤 학생이 오해를 했다"는 말은 judgmental한 말이기 때문에 오해를 더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중요한 포인트라서 복습한다"는 말은 가치중립적(value-neutral)인 말입니다.

<<또 잔소리>>

간단한 학기 중간 강의 평가는 불만이 커지는 것을 미리 예방하는 방법인 동시에 학생들로부터 신뢰감을 형성하는 최선의 교수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 조벽, 2001